

## 『피네간의 경야』 읽기

김 종 건

『피네간의 경야』(*Finnegans Wake*)는 아일랜드의 작가 제임스 조이스(James Joyce)에 의한 코믹 픽션으로, 의미심장하게도 그것의 실험적 문체와 음의(音義, soundsense)의 괴기한 내용 때문에 영어로 쓰인 가장 어려운 작품들 중의 하나로 손꼽힌다. 이 작품은 조이스가 파리에서 17년 이상 걸려서 썼고, 조이스의 사망 2년 전인 1939에 출판된 그의 최후의 작품이다. 책 전체가 대부분 특이한 언어로 쓰이고, 표준 영어의 어휘와 함께 60여개 국어의 다언어적 언어유희 및 응축어로 구성되는데, 많은 비평가들은 이를 잠과 꿈의 경험을 재창조하는 시도로 믿는다.

작품은 그것의 광범위한 언어적 실험, 의식의 흐름 문체, 수많은 지식의 인용들, 꿈의 자유연상, 그리고 그것의 인습적 이야기 줄거리와 인물들의 구성상의 포기 등으로 인하여, 일반 독자들에게 의해 대체로 읽혀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난관에도 불구하고, 독자들과 평자들은 책의 등장인물들의 중심적 역할 그리고 이야기 줄거리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의견을 일치한다. 작품은, 주인공인 가장 H C 이어위커(Earwicker)를 비롯하여, 그의 아내 아나 리비아 플루라벨(Anna Livia Plurabelle, ALP), 그리고 그들의 세 아이들인, 두 쌍둥이 아들, 문사 썸(Shem), 우편배달부 손(Shaun), 그리고 딸 이씨(Issy)로 구성되는, 한 가족의 이야기를 다룬다. 작품은, 이들의 굴절된 꿈의 이야기로서, 한 편의 편지를 가지고 남편의 확인

되지 않은 범죄를 면죄시키려는 그의 아내의 시도, 그의 아들들의 아버지를 대신 하려는 갈등, 손의 출세를 위한 봉기 및 새벽녘에 ALP가 갖는 최후의 독백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위대한 ‘인간곡’이요 (단테의 『신곡』에 버금가는), 대 우주적 서정시라 할 이 작품은 아일랜드의 민요 “피네간의 경야”에 기초를 두고 있는데, 선천적으로 술을 좋아하는 벽돌 운반 공 피네간이 사다리에서 떨어져 죽자, 그의 경야제(장례식)에서 조문객 하나가 그의 시신 위에 위스키를 엮지르자 그가 되살아난다는 이야기이다. 따라서 여기 ‘Wake’(경야)는 그의 ‘죽음과 깨어남(부활)’의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공유한다.

이 작품은 그 동안 그것의 난해함으로 인한 많은 비방에도 불구하고, 영문학에 있어서 탁월한 위치를 차지해왔다. 현대 영국 작가 버저스(A. Burgess)는 “이 책이야말로 하나의 위대한 코믹 비전으로서, 우리들을 거의 모든 페이지에서 크게 웃게 만드는 몇 안 되는 책들 중의 하나”라고 격찬했다. 블룸(Harold Bloom) 교수는 작품을 “조이스의 걸작으로” 부르고, 그를 셰익스피어나 단테의 위치까지 고양시킨다. 최근, 책에 대한 활발한 연구는 경야 사업(Wake Industry)이라 불릴 정도요, 최근의 구조주의 및 포스트구조주의의 첨단 비평관의 시험장이 되고 있는지라, 자크 데리다(Jacques Derrida)의 해체주의(Deconstruction)가 그 대표적 경우에 해당된다. 1998년, 뉴욕의 모던 라이브러리 출판사는 이 작품을 20세기의 100대 영어 소설들 가운데 77위로서 꼽았다.

오늘날 우리는 지난 2002년 한국 최초로 출판된 『피네간의 경야』의 우리말 번역본을 지니게 된 바, 그의 초역을 재정적으로 후원했던 아일랜드 문학 교환원(Ireland Literature Exchange)은 그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했다.

The translator has not, for the most part, attempted to replicate or create an equivalent ambiguity in Korean, but has opted for a Korean word or phrase. In doing this, some of the ambiguity of the original may have been lost, but he manages to convey, consistently, the atmosphere and tone of the original. Also his choice of word or phrase appears sure footed, a random spot-check only unearthed one or two clear-cut mistranslations. The Korean is sometimes more directive than the English. When the translator does create a new Korean word he gives his reader some guidance as to its meaning by the clever device of inserting Chinese characters after the new word.

The author skillfully uses the full potential of the variations in Korean verb endings to convey changes in the nuances of the original.

Overall the translator has risen to a challenge which at first sight would appear insurmountable and has succeeded in bringing to Korean the complexity, colour and humor of Joyce's original.

그런데도, 이 작품의 만족할만한 번역은 어떤 언어로도 불가능한지라, 역자는 그것의 근사치에 접근하는 노력에 불과하다고 실토했다. 번역의 어려움은 주제의 다양성과 신조어, 즉 다언어적 언어유희 및 기법 상의 메커니즘 때문이다. 그리하여 역자는 그의 초역에서 원작의 다양한 주제 및 문체와 함께, 조이스의 생경한 언어를 모방하려고 무던히 애를 썼다. 이를 위해 그는 한글과 한자를 사용하여 수많은 실험적인 신조어를 조탁했었다.

독자들은 그 동안 원작에서처럼, 번역 작품에 범람하는 거대한 모자이크 같은 단편들과 다양한 담론들 및 특유의 신조어들로 인하여, 그 내용이 모호하고 이해하기 힘든 듯 했다. 이에 역자는 이번 새 개역을 통해, 첫째로, 작품을 “가독하도록(readable),” 기존의 일부 어려운 어구들(약 10%)을 쉽게 풀이 하고, 둘째로, 역문 속에 수많은 설명적 보조 장치라 할 [ ]를 도입하여, 이야기의 향방, 문단의 내용, 난해 구절의 해석, 장면의 명시, 인칭 대명사의 지적 등을 밝히고 있다.

나아가, 개역자는 자신의 개역본의 자매본이라 할 『피네간의 경야 연구』(평설과 주석)를 동시에 출간하고, 본문의 “난마처럼 얽혀 복잡하고 헷갈리기 일쑤인 작품이지만 실 끄트머리만 잡으면 잘 풀린다”는 연구 경과를 토대로, 원문의 총 628 페이지의 각 페이지 마다 그 실 끄트머리에 해당하는 내용을 간추려 소개하고 있다. 또한 그는 본문에 12,000여 개의 주석을 달아, 작품의 백과사전적 지식의 인유와 그 전거를 상세히 밝히고 있다. 더욱이, 조이스 문학은 환의 문학인지라, 『피네간의 경야』로 하여금 그의 초기 작품들인 『더블린 사람들』, 『젊은 예술가의 초상』 및 『율리시스』와의 상호텍스트성(intertextuality)을 들어 분석하고 있다.

세계는 지금 『피네간의 경야』의 완역본으로 프랑스, 독일, 일본의 판본들을 갖고 있다. 한국 본은 세계 4번째다(중국과 브라질은 한창 번역 중). 역자의 이번 개역과 연구는 그의 자세한 해설과 주석에 의한 작품의 폭 넓은 연구로서, 그가 지난 1973년 네덜란드의 『피네간의 경야』 학자 레오 크누스(Leo Knuth) 교수로부터 사사 받은 이래, 그의 2002년에 초역, 그로부터 퇴임 후 10 여년에 걸쳐 이룩한

오랜 연구의 산물인 셈이다. 특히, 이 작업은 역자 자신이 그 동안 일구어 낸 조이스 문학 전집 번역을 통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그의 개역본의 서문에서 이 작품의 진귀한 문학적성과 언어의 실험성을 들어, “오늘 우리의 모든 문화가 날로 변화하고 발전하는 현실에 문학만이 그대로 담보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겸허히 묻고 있다. 그는 『피네간의 경야』의 연구 및 해독이야말로 한국의 현대문학의 발전을 위해서도 그의 적극적인 소화 작업이 절실하다고 역설한다.

이 우주적 대 서정시라 할 『피네간의 경야』의 독자는 애초에 원문 텍스트이든, 그것의 번역문이든 읽기에 처음 좌절을 경험할지 모른다. 그러나 그는 이의 “가독”을 위해 노력할지니, 애초부터 그것의 실망은 금물이다. 저명한 조이스 비평가 비숍(John Bishop) 교수가 지적하듯, “독자는 모든 것을 한꺼번에 이해하려고 기대하지 않는 한, 어느 누구나 작품에 들어 갈수 있고, 그를 빨아들이는 뭔가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그는 작품에 편재한 단편들, 예를 들면, 반 후터 백작과 프렌퀸 일화, 여우와 포도, Tristan과 Iseult, 개미와 배짱이, 소련 장군 이야기 등을 하나하나 우선적으로 읽기를 권장한다. 그리하여 이런 취지로 총체적 독해를 요구하는 『율리시스』보다 한층 쉽게 그를 접근할 수 있다고 알려준다.

오늘날 우리가 조이스 문학의 총체적 정전(literary canon)을 통해 『피네간의 경야』에 이토록 미혹함은 무엇 때문인가? 그것은 모더니즘 문학의 한 대표적 작품으로서, 그것이 담고 있는 새로운 문학적성과 언어의 다양한 효율성 때문이다. 이 작품은 앞서 지적처럼, 지금까지 많은 독자들이 감히 읽을 수 없는 작품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이번 개역으로 가독의 가능성을 발견할지니, 그를 읽는 노력은 값진 보상을 받으리라.

참고로, 『피네간의 경야』의 원본 초판이 1939년 영국에서 처음으로 출간된 이래, 그간 약 9,000개의 오류가 그대로 방치되어 왔다. 그리하여 최근 텍스트 분석가들(Danis Rose & John O’Hanlon이 그 대표자들)은 원본의 약 2만 페이지에 달하는 노트, 초고, 타자고, 고정 쇠 등을 비교 대조하는 “30년간의 집중적 연구” 끝에, 이의 완전한 결정 본을 금년 중으로 출간 할 예정이라 한다. 이러한 결정본의 결과로, 한국어의 역자는 자신의 완역 본을 위해 또 다른 노력을 경주해야 하리라. 조이스는 “나의 작품을 위해 일생을 바쳐라”하고 말했거니와, 역자 자신은 이를 위해 일생은 모자랄 것 같고, 또 하나의 일생이 필요할 것 같다며, 고소를 짓는다.

다음은 역자가 최근의 『경야 연구』에서 밝힌 내용으로, 작품의 최후 단락(FW 628)의 (1) 본문, (2) Ogdenian Basic English, (3) 번역, (4) 노트, 그리고 (5) 평설을 통한 텍스트 읽기의 한 범례이다.

### (1) 본문

And it's old and old it's sad and old it's sad and weary I go back to you, my cold father, my cold mad father, my cold mad feary father, till the near sight of the mere size of him, the moyles and moyles of it, moananoaning, makes me seasilt saltsick and I rush, my only, into your arms. I see them rising! Save me from those terbble prongs! Two more. Onetwo moremens more. So. Avelaval. My leaves have drifted from me. All. But one clings still. I'll bear it on me. To remind me of. Lff! So soft this morning, ours. Yes. Carry me along, taddy, like you done through the toy fair! If I seen him bearing down on me now under whitespread wings like he'd come from Arkangels, I sink I'd die down over his feet, humbly dumbly, only to washup. Yes, tid. There's where. First. We pass through grass behush the bush to. Whish! A gull. Gulls. Far calls. Coming, far! End here. Us then. Finn, again! Take, Bussofthee, mememormee! Till thousandsthee. Lps. Given! The keys to. A way a lone a last a loved a long the [FW 628: 1-16]

### (2) C. K. Ogdenian Basic English(Matrix)

And it's old and old it's sad and old it's sad and weary I go back to you, my cold father, my cold mad father, my cold mad fearful father, till the near sight of his size, miles and miles of it, mono toning moaning, makes me sea sick salt sick and I rush, my only, into your arms. I see them rising! Save me from those terrible treble prongs! Two more. One two more moments more. So. Farewell Anna Livia. My leaves have drifted from me. All. But one clings still. I'll bear it on me. To remind me of. Liffey! So soft this morning, ours. Yes. Carry me along, Daddy, like you done through the toy fair! If I seen him bearing down on me now under white spread wings like he'd come from Archangel, I sink I'd die down over his feet,

humbly dumbly, only to wash up. Yes, time and tide. There's where. First. We pass through grass hush to the bush. Be quiet! A gull. Gulls. Far calls. Coming, far! End here. Us then. Finn, again! Take, But softly, memorize me! Till thousands years. Listen lips. Given! The keys to. A way a lone a last a loved a long the

### (3) 한국어 번역

그리하여 세월은 오래고 오랜 슬프고 오래고 슬프고 지친 채 나[ALP]는 그대에게 되돌아가나니, 나의 차가운 아버지, 나의 냉광부冷狂父, 나의 차갑고 미친 불같이 무서운 아비에게로, 마침내 단지 그의 크기를 가까이 보기만 해도, 수數마일 및 기幾마일1), 단조 신음하며2), 나로 하여금 해침니海沈泥 염鹽벌미나게3) 하는지라 그러자 나는 돌진하나니, 나의 유일한, 당신의 양팔 속으로. 나는 그들이 솟는 것을 보도다! 삼중공三重恐의 갈퀴 창槍4)으로부터 나를 구할 지라! 둘 더하기, 하나둘 더 많은 순간들5). 고로. 안녕 이브리비아6)여. 나의 있들이 나로부터 부이浮離했도다. 모두. 그러나 한 잎이 아직 매달려 있는지라.7) 나는 그걸 몸에 지닐지니. 내게 상기하도록. 리[피]! 너무나 조용한 이 아침, 우리들. 그래요. 나를 실어 나를지니, 아빠여, 당신이 소꿉질 하듯! 그가 방주천사方舟天使 출신인 양8) 하얗게 편 날개 아래로 나를 빙금 실어 나르는 것을 내가 본다면. 나는 가라앉나니 나는 그의 발 위로 넘어져 죽으리라. 겸허하게 말없이9), 오직 깨어나기 위해 10), 그래요, 조시潮時여.11) 저기가 거기라. 첫째로. 조용히12) 풀 수풀에로 통과하고. 쉬!13) 한 마리 갈매기. 갈매기들. 먼 부르짖음, 다가오면서, 멀리! 여기 종말이. 우리들에 이어, 핀, 다시(어젠!) 점령할지니. 그러나 유연하게, 기억할 지라!14) 수천송년數千送年까지. 소리를 들을지니.15) 열쇠를. 가져가라!16) 한 길 한 외로운 한 마지막 한 사랑 받는 한 기다란 그

### (4) 주석 & 釋義(모체+側枝要素(annotation & Exegesis: matrix + lateral parts: contiguous elements); 보조물(Subsidiaries)

1) 수마일 및 기 마일(the moyles and moyles): (1) miles and miles (2) Moyle: 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 사이의 바다. “feary”: (1) of fear (2) of fire (3) Lir(Gael):

- 2) 단조 신음하며(moananoaning): (1) monotoning+moaning+monotonous: 單調呻吟 (2) Manannan (3) Mona(여자 이름)
- 3) 해침니 염멀미나게(seasilt saltsick): Mananaan MacLir: 아일랜드 전설의 해신(『울리시스』, 『스킬라와 카립디스』에서 스티븐은 『리어 왕』(King Lear)의 이야기가 나오자, MacLir(동음이의)를 생각한다: “너의 파도 글고 너의 해수를 가지고 그들 위를 덮어 흘러라 / 마나난, 마나난 맥크리어”(Flow over them with your waves and with your waters, Mananaan MacLir). (U 155)
- 4) 삼중공의 갈퀴 창(therrble prong): (1) treble: Neptune의 세 갈퀴 창(trident)이다 (2) terrible prongs(터블린 만 속으로 뻗는 N & S Walls, 남서 강 壁岸)
- 5) 더 많은 순간들(moremens): (I) Irish Sea: Muir Meann: 맑은 바다(Limpid Sea): 아일랜드 해의 암시. (2) more moments.
- 6) 안녕 아브리비아(Avelaval): (1) Anna Livia (2) (L) avw et vale: hail & farewell (3) (F) l’aval: 하류 방향 (4) Liffey. Lff: Liffey
- 7) 나의 잎들이 나로부터 부이浮離했나니... 잎이 아직 매달려 있도다(My leaves have drifted...one cling still): (1) O. Henry의 “The Last Leaf”의 인유 (2) the last page of this book(FW).
- 8) 그가 방주천사方舟天使 출신인 양7) 하얗게 편 날개 아래로(under whitespread wings like he’d come from Arkangels): (1) 노아는 육지를 발견하기위해 새들을 날려 보낸다 (2) 「마태복음」 1:20: “주님의 천사”(angel of the Lord)(성수태고지)(Annunciation) (2) Archangel: (R) St Michael의 이름.
- 9) 겸허하게 말없이(humbly dumbly): 자장가의 인유: “땅딸보”(Humpty Dumpty)의 암시.
- 10) 오직 각세하기 위해(only to washup): (1) 「누가복음」 7:38: “마리아 마그달린은 그리스도를 세족洗足한다”(Mary Magdalen washes Christ’s feet) (2) “재차 깨나다”, wake up again(覺醒+復活).
- 11) 조시여(tie): time + tide(세월의 흐름).
- 12) 조용히(behush): (1) hush(20 be quiet).
- 13) 쉬!(Whish!): (Angl) silence!
- 14) 여기 종말이여. 우리를 이어, 핀, 다시(어젠)! 가질지라. 그러나 유연하게, 기억할 지라!(End here. Us then. Finn, again! Take, Bussoftlhee, mememormee!):

ALP가 바다에로 흘러 나가자, 더 많은 셰익스피어의 여주인공들이 표면화 한다. Leo Knuth 교수는 ALP의 “여기 종말이여”는 마리나(「페리클리스」의 여주인공)의 “나는 바다에서 태어났기에”(V.i. 157) “나는 여기 끝일 지라”(I will end here)(V. I, 154)를 매아리 한다고 한다. 셰익스피어의 또 다른 여주인공 줄리엣은 그녀의 절망을 표현하기 위해 이 말들을 사용한다: “...동작을 여기 끝일지라”(「로미오 줄리엣」, III. ii. 59). 로미오의 독백에 영감을 준 것은 창문의 줄리엣의 광경이다: “그러나 조용히! 무슨 빛이 저 창문을 통해 터져 나오느고?”(“But soft! What light through yonder window breaks?”). 앙갚음의 여주인공 이사벨라의 대역인, 마리야나에 행한 지시: “그러나 조그맣게 가만히 / 오빠의 일을 잊지 말아 주세요”(김재남 499)(but, soft and low, / Remember now my brother.)(IV. I. 68-69)와 비교하라. 이 말들은 ALP의 “Bussoftlhee, mememormee” 속에 매아리친다.

Knuth 교수는 유령의 “그러나 조용히, 벌써 새벽바람이 이나 보다.”(김재남 803)(“But soft, methinks I scent the morning air.”)(*Hamlet* I. v. 58)라는 구절이 여기 또한 “Bussoftlhee”와 “So soft this morning, ours”(628.08) 속에 담겨 있고, 마지막 페이지의 “Liff!”와 “mememormee”는 『햄릿』의 같은 장면에서 유령의 구절을 언급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mememormee!”는 ALP가 대양 속으로 살아 질 때, 그녀의 남편에 대한 이별의 말들로서, HCE 자기 자신이, 부왕 햄릿으로서 이전의 비코적 화신으로, 새벽에 사라지면서 그의 아들에게 언급했던 같은 말들의 통렬한 매아리이다: “안녕히, 안녕히, 안녕히, 나를 기억할 지라!”(Adieu, adieu, adieu. Remember me!)(*Hamlet* I. v. 91).

- 15) 소리를 들을 지라(LP): “Lps”: List(햄릿 부왕의 당부)+Lips. Knuth 교수는 “Lps”가 네덜란드의 열쇠(인기 있는 상업광고용으로)라고 말한다.
- 16) 열쇠를. 가져가라!(The keys to. Given!): (1) 노래 가사의 인용: “나는 그대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리라”(I Will Give You the Keys to Heaven.) (2) 또한 “The keys to. Given.” 회귀와 재기의 여명(새벽)에 입술을 주고받음(and soft kisses -아마도 “Bussoftlhee”: 비평가 Werner Morlang은 이러한 최후의 말들과 <앙갚음>의 마리야나의 노래를 비교한다:



가져가라, 아 저 달콤했던 입술을,  
 거짓 맹세한 저 입술을.  
 가져가라, 그 눈도  
 아침의 햇빛 같았던 그 눈도.  
 그러나 되돌려 다고, 내 키스를. (IV. I.1-5), (김재남 498)

Morlang은 조이스가 조지오와 헬런(조이스의 아들 및 며느리)에게 보낸 편지에서 셰익스피어의 서정시를 그의 “기호품”이라 불렀음을 기록한다.

### (5) 평설

ALP는 홀로 독백 한다: “나는 떠나고 있도다. 오 쓰디쓴 종말이여! 나는 모두 들 일어나기 전에 살며시 사라질 지라”(FW 627.34): 이어 작품의 최후의 페이지는 이 작품의 산문시의 극치이다.

이 결구에서 보듯, ALP는 “삼중공三重恐의 갈퀴 창槍”(Neptune의 상징으로서의 HCE의 암시)을 지닌, “나의 냉부冷父, 나의 냉광부冷狂父, 나의 차갑고 미친 공화恐火의 아버지”(my cold mad feary father)에게로 나아간다. 이 광부(켈트의 해신 마나난 맥크리어(Mannaan MacLir)(U 155)(그는 『율리시스』의 「키르케」장의 밤거리의 환각에서 유례없이 출현하거나와: “MANANAUN MACLIR”(U 416)는 또한 『리어 왕』(King Lear)으로, Lir(Gael. Sea)이요, “나의 차갑고 미친 공화恐火의 아버지”이다. 그리고 그에게로 아나 리비아-코델리아(Livia-Cordelia: (Cordelia, Cordoglio. Lir’s loneliest daughter)(U 158)가 리피 강이 바다에로 흘러 나가하듯, 죽음 속으로 회귀한다. 여기 Lear(Lir)는 『경야』에서 바다뿐만 아니라, 세 다른 아버지들 – 이어위커(Earwicker), 조이스 및 셰익스피어를 대신한다.

“먼 부르짖음, 다가오면서, 멀리! 여기 종말이. 우리를 이어, 핀, 다시(어젠!) 가질지라. 그러나 유연하게, 기억할 지라!...열쇠를...”(Far calls. Coming, far! End here. Us then. Finn, again! Take, Bussoftlhee, mememormee!...The keys to...), 이 구절에서 “기억”(mememormee)이란 말은 모든 죽어가는 동물과 분담하는, 희망 또는 약속의 암시이다. “가질지라...열쇠를!”에서 열쇠는 천국을 위한 것이다. 이 최후의 구절에서 5개의 부정관사 “a”가 정관사 “the”를 선행하거나와, 이는 『율리시스』의 물리의 최후의 “yes”의 반복과 대등하다. 이들 두 단어들은 감수의 말들

이요, 최후의 말인 “the”는 『피네간의 경야』의 최초의 단어인 “riverrun”(FW 3)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조이스는 『제임스 조이스 점토본』(*Claybook for James Joyce*)의 저자인 당대의 Louis Gillet에게 이 최후의 구절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한다: “『울리시스』에서 나는 잠자러 가는 여인의 중얼대는 말을 묘사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한 최약(最弱)의 단어로 끝맺기 위해 ‘yes’란 단어를 찾았었는데, 이는 묵시, 자기 기원, 이완, 모든 저항의 종말을 암시하오. 『진행중인 작품』에서 나는 영어에서 가장 매끄러운, 최소한의 말투, 가장 약한 말을 찾아냈다고요. 이는 심지어 말이라고 할 수 없는, 이빨과 숨결 사이에 거의 무성의 것이요, 무 자체인, 정관사 ‘the’이요.” (Ellmann 506) 이 말(the)의 무세無勢의 미약성은 『울리시스』의 「나우시카」장의 문체, 즉 “감상적인, 잼 같은 마멀레이드의 유연한” 문체를 상기시키거니와, 바로 낮의 세계와 그것의 의식적 직관의 귀환을 나타내는 정관사성定冠詞性(한정성)(definiteness) 바로 그것이다.

틴달(William Tindal) 교수의 말을 빌리면, “ALP의 종곡은 음조 및 기능에 있어서 블룸 부인의 최후의 독백과는 다르다. 블룸 부인은 4개의 육체적 점들(because, bottom, woman, yes)의 축 주위를 맴돈다. ALP는 체프리즈드에서 더블린 만까지 미로의 코스를 택하면서, 그녀의 가족의 기억들을 통해, 세월과 죽음의 감수애로 흐른다. 블룸 부인의 독백은, 인생에 대한 ‘긍정’(yes)을 말하면서, 동시에 우스꽝스럽고도 심각하다. ALP의 그것인즉, 이는 언어의 경쾌함에도 불구하고, 홀로 심각한지라—애수적이요, 『지아코모』(*Giacomo Joyce*)의 당혹스런 감상벽을 회피하는 감정으로 채워져 있다. 그토록 경쾌한 작품 『피네간의 경야』의 분위기와는 맞지 않는 어색한 결론일지 모른다. 그러나 아마도 조이스는 “나는 아주 시녀시녀 시녀심각視女深刻하다”(I am highly sheshe sherious, FW 570)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말했던 바를 의미했다. 과연, 심각한 경쾌함은 인생과 죽음을 부르는 그의 습관적 방법이었다. 블룸 부인처럼, 여기 노부老婦는 “yes”를 말할 수 있으리라. 그러나 우리들의 전반적 운명에 대한 그녀의 감수는, 때때로, 초조와 미몽의 깨어남으로 한정된다. ALP는 살아왔고, 이제는 지쳐있다. 그러나 전적으로 낙담하지 않은 채, 그녀는 우리가 갖는 바를 택한다. 그녀의 목소리는, 확신으로 변용된, 조이스의 목소리요, 그리하여 비범하게도 “시녀시녀 시녀심각視女深刻한지라”(sheshe sherious), 그리하여 「죽은 사람들」의 마지막 페이지에서처럼, 이 마치

막 페이지에서 감동적으로 생과 사에 관해 자신이 말해야 함을 모두 말하고 있다 (Tindall 324-5 참조).

한편, 글래션(Adaline Glasheen) 교수는 『피네간의 경야』의 최후 페이지(FW 628)는 한 단락으로서, 아나 리비아의 백조의 노래의 숨 가쁜 종말이라 주장한다. 그것은 최후의 흐름의 긴 항정航程을 타고 죽음의 바다 속으로 나아가는 시인의 영혼 그 자체다. 『더블린 사람들』의 「죽은 사람들」이나 『울리시스』의 물리의 모습을 띠고, 이 종말은 우아하게 장착裝着한지라, 고로 여러 방도로 읽혀질 수 있다. 이 감동적 종말은 야외의 이야기요, 동화를 닮았다. 그것은 언덕을 오르고, 강을 따라 걸으며, 바다 속에 익사하는 여인에 의해 말해지는 극적 독백인지라, 그녀는 자기 결의 한 말없는 거인 남성(HCE)에게 내내 말을 건다. “일어날 지라, 가구家丘의 남자여, 당신은 아주 오래도록 잠 잤도다!” 그러나 이 남성 HCE는 생각하기에 두려울 정도로 아무 말이 없다. 그녀의 멋진 수사가 강도와 비탄 속에 증가할 때, 그가 그녀에게 전혀 응답하지 않다니 생각하기에 애가 탈일이다(Glasheen lxx-lxxi 참조).

또한 블룸(Harold Bloom) 교수는 지적하기를, 이 아름다운 죽음의 구절은 조이스가 또 다른 위대한 서사시를 계획했으리라, 서운해 할 일이다. Keats는 『리어 왕』을 재독하고, 그것의 “들어라, 그대는 바다를 듣는 고”(Hark! Do you hear the sea)(*King Lear*. IV. vii. 4)라는 말을 떠올렸을 때, 그의 훌륭한 소네트인 「바다에 관해」(“On the Sea”)를 썼다. 우리는 조이스가 그의 「바다에 관해」라는 시를 쓰도록 60대까지 살지 못함을 아쉬워 할 수 있나니, 이 시에서 의심할 바 없이 그의 셰익스피어와의 끝없는 갈등(agon)을 노정했으리라(Bloom 432 참조).

(전 고려대)

## 인용문헌

김재남. 『셰익스피어 전집』. 서울: 을지 주식회사, 1995.

Artherton, James S. *The Books at the Wake*. London: Faber and Faber, 1959.

Benstock, Bernard. *Joyce-Again's Wake*. Seattle and London: U of Washington P, 1965.

Bishop, John. *Joyce's Book of the Dark*. Madison: Wisconsin UP, 1989.

Bloom, Harold. *The Western Canon*. New York, San Diego, London: Harcourt Brace & Company, 1994.

Burgess, Anthony. *Here Comes Everybody*. London: Faber and Faber, 1965.

Connolly Thomas E. ed. *James Joyce's Scribbledehobble, The Ur-Workbook for 'Finnegans Wake'*. Evanstone: Northwestern UP, 1961.

Ellmann Richard. *James Joyce*. New York: Oxford UP, 1959.

\_\_\_\_\_. ed. *Letters of James Joyce*, Vol. III. New York: The Viking Press, 1966.

Glasheen, Adaline. *Third Census of 'Finnegans Wake': An Index of Characters and their Roles*. Los Angeles, London: U of California P, 1977.

Hart, Clive. *Structure and Motif in 'Finnegans Wake'*. London: Faber and Faber, 1962.

\_\_\_\_\_. *A Concordance of Finnegans Wake*. Minneapolis: Minnesota UP, 1963.

Hayman, David. *The 'Wake' in Transit*. Ithaca and London: Cornell UP, 1990.

\_\_\_\_\_. *A First-Draft Version of Finnegans Wake*. Austin: Texas UP, 1963.

Higginson, Fred, ed. *Anna Livia Plurabelle: The Making of a Chapter*. Minneapolis: Minnesota UP, 1960.

Lernout, Geert, ed. *European Joyce Studies II. 'Finnegans Wake': Fifty Years*. Amsterdam and Atlanta Press, 1990.

McHugh, Roland. *Annotations to Finnegans Wake*. Baltimore and London: Johns Hopkins UP, 1980.

Norris, Margot. *The Decentered Universe of 'Finnegans Wake': A Structuralist Analysis*. Baltimore and London: Johns Hopkins UP, 1976.

Rose, Danis, ed. *James Joyce's 'The Index Manuscript': Finnegans Wake*

*Holograph Workbook VI. B. 46.* Chester: Neswslitter Press, 1978.

Rose, Danis & John O'Hanlon. *Understanding 'Finnegans Wake': A Guide to the Narrative of James Joyce's Masterpiece.* New York: Garland Press, 1982.

Tindall, William. *A Guide to Finnegans Wake.* New York: Noonday Press, 1959.

## Abstract

### Reading *Finnegans Wake*

Chong-keon Kim

In the year of 2002, the first Korean translation of *Finnegans Wake* was published for the first time after much meandering of effort and encouragement. During the long assignment of translating Joyce's work, the great Human Comedy, the translator was "torn by conflicting doubts" and indeed tormented with the struggle between body and mind.

Yet, despite it all, today in Korea the highbrow readers as well as the common ones have found the translated text very difficult and obscure to read and understand. This is largely due to the translated work like the original's expansive linguistic experiments and its abandonment of the conventions of plot and character construction. So far, the Korean work remains largely unread by the general public. This unreadability mainly and surely comes from the translator's faithfulness of enlivening and restoring Joyce's original literary style and technique. Sometimes using certain Chinese characters that the Korean alphabet "Hangeul" incorporates can prove to be very helpful because of their spontaneous, compact visual effect. This macrocosmic lyric, *Finnegans Wake*, is the text of "the ineluctable modality of the visible" and "the ineluctable modality of the audible."

In consequence, the translator once again did his best to conquer these difficulties and obstacles, and to make the work readable as he once did to *Ulysses*. A saying comes to his mind: "The general principle of my life is labor." To this writer reading and translating *Finnegans Wake* has been catharsis for him.

In order to conquer these handicaps and to enrich our reader's understanding and appreciation of the translated work, he once again has recently published his new revised edition of his former translation, as the work has to continue because

it is the art possibility. This time, he inserted many extra explanatory notes and hints in the brackets into the translated text, which, as a role of a useful vertical rudder, will help the competent keyless reader proceed “from the known to the known through the incertitude of the void.”

Furthermore, he published another new and additional companion-book of annotations to the version which ties up all the fragments of such a huge mosaic and the most monstrous hybridization of “soundsense” masquerading as a dream. This book includes a brief outline and commentary of each page.

The quoted last page (*FW* 628), from “ALP’s monologue, will hopefully demonstrate the translator’s above mentioned purport: videlicet text, C. K. Ogdenian Basic English(Matrix), translation, notes, criticism, etc.

■ **Key words** : James Joyce, *Finnegans Wake*, Anna Livia, Vico  
(제임스 조이스, 피네간의 경야, 아나 리비아, 비코)

논문접수: 2012년 5월 14일

논문심사: 2012년 5월 30일

게재확정: 2012년 6월 17일